

## (9) ㉠영등당㉠ (한림읍 한림리)

옛날, 성은 황씨,  
 이름은 영등이라는  
 민간 사름도 아니고  
 저승 사름도 아니고  
 요왕 사름도 아닌  
 대왕이 무휴에서 솟아나,  
 요왕황저일 들어가.  
 이 때 동정국 애기씨 하고  
 서정국부인광, 서녀광 서이가  
 나발이평개에서  
 노념을 훔 때에  
 한수릿 괴깃배가  
 풍파를 만나서  
 외눈배기 땅데레 불려감시니  
 영등대왕이 나산  
 “저 사름을 구제해서 살리라.”  
 하여,  
 큰 왕석 우이 가 앓아시니,  
 배가 그 안으로 들어갔수다.  
 영등대왕이 그 사름들을  
 전부  
 왕석 쏘곶데레 곱져부니  
 외눈배기놈들이 물어먹을랴고  
 개를 두리고 들어오면서  
 “곧, 이제 존 반찬이 왔는디  
 어디 갔느냐?고 하자,  
 영등대왕은,  
 “나도 그런 걸 봉글랴고  
 나앗았다.”하니  
 외눈배기놈들은

다 나가부렸수다.

영등대왕은 배를 내여놓아

보제기들을 보내면서

“이 배를 탕 가면서

‘가남보살 가남보살’함명

가라.”고 시켰수다.

보제기들은 배를 타두서

“가남보살 가남보살’을

불르명 돌아오는디,

거저 훈곳이 당함여가난

“가남보살을 아니불르던

이제사 관계 었다.”

해서,

그만, 가남보살을 아니불르니

호련 강풍이 또시 일어가지고,

또로 외눈배기 땅데레 들어가니,

영등대왕은 7리에 그 자리에

나왔아 이서,

보제기들은

“살려줍서”고 빌었수다.

영등대왕은

“왜, 그 때에

내가 뭐라고 함더냐?”

함면서

“따시 가남보살 가남보살을

불르명 가라.”고 함였수다.

경함고 또

“훈곳딜 가더라도

가남보살을 불르명 댕이곡,

영등들 초함을날랑

날 생각을 함여라.”함니

그 때에 보제기들은

가남보살을 불르명

괴양 한수리??지 돌아왔수다.

글지후제 외눈배기놈들은

영등대왕신디 가  
“당신 덕분에  
존 반찬을 못먹었다.”고 해서  
영등대왕을  
장도칼로 삼도막에 그차  
죽여,  
바당데레 내껴부니,  
머릿뺨은 소섬으로 올르고,  
발치거린 한수리 비꿀물로  
올르고,  
한존동은 청산으로 올르니,  
민간 백성들은  
바당에 수중액을 막아준  
영등대왕의 그 은혜를  
생각하연,  
소섬에서  
정월 구름날 제를 치고  
초하를날 비꿀물에 오고,  
청산은 초닷췌날  
영등제를 시작하네다.  
그 때에 영등대왕이  
제를 잘 받아먹으민  
고양데레 가곡,  
일년에 한번 돌아보는  
조상이우다.  
이 영등대왕은  
소섬에도 처가 있고,  
청산도 처가 있고,  
한수리도 처가 있어,  
각시는 삼첩입네다.

제일, 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림읍 옹포리 남무 50세 김승은님>

(9) ㉠영등당㉡ (한림읍 한림리)

<영등당>

영등당의 본초는 영등대왕이고  
영등대왕님의 본초는  
유대감댁 글 ㄱ리치단 선싱이우다.  
영등대왕의 성은 전(田)씨이고  
이름은 영등(靈登)이우다.  
영등대왕이 원천군 유대감댁에서  
소년으로 망년ㄱ지  
거주할 때에  
선비를 거느려  
글을 ㄱ리치단에  
망년에 스망되엿수다.  
스망일즈는 이월초하로라,  
유대감이 잊힐 수 엿는  
애정으로, 제수를 햏였는디,  
햏번은  
스망된 전영등 혼령이  
나타나서 감스햏 인스를 햏명  
“저는 인정을 갚을 수  
엿습네다.  
앞으로는 큰 송년이 당햏 테인데  
당신네 집에는  
큰 풍년을 시기겠습네다.”  
햏여,  
이 말이 끝나자  
간 곳이 엿어졌는데,  
아닌게 아니라  
앞으로 송년이 닥쳐오라도  
그 가정만은  
특별햏 풍년이 되엿습네다.  
영등의 혼령 덕분에

풍년이 된 것을 믿고 있는  
 유대감의 뜻은  
 원천군 전역에 전해지자,  
 모두가 이 영등을 위찬하게  
 되었습네다.  
 그 영등대왕의 덕으로  
 농사에 풍년과  
 해상에 해산물이 풍성하여지니,  
 온 백성이  
 글주후젠  
 “이 영등의 혼령을  
 잊힐 수가 었다.”하여  
 제주삼읍에 문 퍼져서  
 기도장수흡네다.  
 기도장수는 제주시, 수원,  
 서귀읍, 소섬,  
 이츠폅 네곳에서  
 이월 초하를날  
 영등굿을 잘 치여서  
 덕을 입고,  
 못치며는 악화가 닥칩네다.  
 이 영등대왕이  
 제주도를 한번 쏙 살펴보민,  
 선흔 사름, 악흔 사름을  
 문 골리곡,  
 정월 구뭉날 소섬으로  
 들어오민  
 수원에서 축원하여  
 일뢰만이 전송흡네다.

제일 2월 1일부터 7일간.

<애월면 신엄리 남무 42세 양태옥님>